

숲...바다...사찰...정원... 전남의 '청정 보석' 빛을 발한다



해남 4est 수목원.



여수 금오도 비렁길.

코로나 시대 관광 전남 뜬다

<1>프롤로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이 아닌 자연과의 건강한 접촉과 만남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체 관광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집적하는 시설보다는 가족, 친구, 지인 등 소수의 개별 관광객들이 자연을 거닐며 즐기고 쉴 수 있는 '청정 공간'의 중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숲길, 산길, 해안길, 사찰, 정원 등 전남에 산재해 있는 인적 드문 보석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위기 속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개발이 더디고 인위적인 시설이 부족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전남도의 관광자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염이 덜 돼 있고,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지고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자연스럽게 전국적·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다만 이들 자원이 지속가능한 청정함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 시설을 첨단 기술과 위생·방역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설치해나가고, 철저한 예약제를 통해 인원을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관광지 주변에 자리한 식당, 펜션 등 민간시설의 위생·방역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관광객들의 동선을 감안해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의 추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앞두고 도내 각종 관광지 중 선별해 90개의 언택트(Untact, 비대면) 관광지를 추려내고 다시 50곳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모두 야외관광지로, 기존 유명관광지와 더불어 숨겨진 관광지도 함께 발굴해 관광객들을 분산하고 보다 안전하게 소소한 행복들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발굴된 비대면관광지는 바다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낭만트레킹을 누릴 수 있는 목포 고하도 산책로, 진도 접도 웰빙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고흥 옥섬·연흥도 등이 선정되었으며, 국립나주숲체원, 장흥 천관산 동백생태숲,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치유의숲, 장성 죽령산 숲체원, 구례 천은사 소나무숲길·천개의향나무숲 등이 피톤치드의 향기와 함께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산림체험지로 뽑혔다.

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계절별로 오색찬란의 꽃잔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보성 대원사길(봄

몰라서 못 가고 불편해서 안 갔던 전남에 산재한 때문지 않은 공간들 자연과 거리 좁히기 나서는 요즘 기를 쓰고라도 가고 싶은 곳 되다

빛썰), 해남 4est수목원(여름 수목),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공원(가을) 장흥 천관산 동백생태숲(겨울) 등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비대면관광지 50선 테마와 계절에 맞게 매달 4-5개소씩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거점 비대면관광지와 주변관광지를 함께 연계해 여행할 수 있도록 릴레이 홍보하고, 50선을 활용한 전라남도 비대면 테마여행도 새롭게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새로운 일상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콘텐츠 수요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부단히 고민했다"며 "이번 비대면관광지 50선에서 전국·세계의 관광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비대면관광지 50선은 전남도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와 전남도가 운영

하는 관광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남도여행길잡이 채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관광지는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전남도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아 선정한 '2021년 방문해야 할 명품숲', 수려한 산림자원에 조성된 숲길을 걸으며 힐링과 치유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전남 숲길' 등에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9개 정부부처 연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되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외래객을 유치, 남도에서 쇼핑과 음식, 숙박 등 지역완결형 관광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투자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원을 포함해 모두 214억원으로, 이 가운데 4개 사업(24억원)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직접 수행하게 돼 전남 관광의 세계화를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 역시 이 사업을 통해 비교우위 자원을 부각하고, 교통과 숙박, 쇼핑 기반을 보완해 하나의 스마트플랫폼으로 연결, 블루 투어 국제관광지로 우뚝 설 방침이다. 문체부의 '지역혁신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방한관광객을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전남의 비대면 관광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위부터 해남 달마고도, 신안 안좌 반월도, 목포 고하도 해안데크.

<전남도 제공>

전남 언택트 관광지 50선

50곳의 언택트 관광지 중 신안과 구례가 4곳이었으며, 목포·여수·순천·해남·완도·진도·고흥이 3곳이 포함됐다. 광양·담양·보성·화순·장흥·강진·무안·영광 등이 2곳, 나주·곡성·영암·함평·장성 등이 1곳이다.

목포의 '고하도 해안데크, 용오름 둘레숲길, 전망대'는 고하도 전망대에서 고하도 용머리까지 1080m인 해안데크가 설치돼 있다. 해안 수면위로 설치된 해안데크는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고하도 용머리 왼쪽으로 2.9km의 용오름 산책로, 오른쪽으로 3.1km 둘레숲길이 조성돼 있다.

여수의 '백리섬성길'은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화태대교·화태도·월호대교(가칭)·월호도·개도대교(가칭)·개도·제도대교(가칭)·제도·화정대교(가

신안·구례 4곳...목포·여수 등 3곳 오감 채워주는 50가지 매력 속으로

칭)·백야도·백야대교·화양면·조화대교(가칭)·조발도·둔병대교·둔병도·낭도대교·낭도·적금대교·적금도·팔영대교·고흥군 영남면 우천리로 연결되는 연륙교다. 해상전경 조망을 위해 특별 설계된 교량으로 드라이브 여행으로 적격이다.

순천의 '봉화산둘레길·죽도봉공원(필마비)'는 순천시내를 사방으로 돌아보며 느끼는 힐링 코스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봉화산 3부 능선 12.5km를 4개 구간으로 나눈 둘레길은 구간마다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 유아 숲, 실버 숲 등 코스마다 테마를 부여해 산책과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

나주의 '국립나주숲체원'은 호남의 8대 명산이자 생태적 가치를 지닌 금성산에 위치하고 있다. 금성

산의 야생차 군락과 나주의 문화를 활용해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맞춤형 산림교육, 산림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편백나무향으로 가득찬 숲속의 집(숙소)도 운영하고 있어 숲체험 후 하루 머물렀다 갈 수도 있다.

광양시의 '망덕포구&배알도&근린공원'은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천자봉조형 명당이 있다는 망덕산, 무적섬, 운동주 유교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옥 가옥과 시정원이 있다. 배알도를 중심으로 망덕포구와 수변공원이 2개의 해상보도교로 연결돼 있으며 섬진강재첩, 전어, 백합 등 먹거리가 풍부하다.

담양의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

나로 좁히며 험준한 지형 위에 7km 성벽을 둘렀고, 곡성의 '도립사'는 신라 무열왕(660년) 당시 건립돼 원효대사와의 인연이 있다. 보성의 대원사(길)는 백년고찰 대원사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티벳 박물관 등을 함께 찾을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 중 하나이며, 화순의 '만연산 오감길'은 자체함과 치유공간을 갖춘 사람문화단지로 알려져 있고, 장흥의 '천관산 동백생태숲'은 역세로 유명한 천관산 중턱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백 자생군락지다.

강진의 '백운동원림'은 조선 중기 처사 이담로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이라 새기고 조영한 정원이며, 해남 '달마고도'는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해남의 '4est수목원'에서는 봄 분홍꽃 축제, 여름 수국축제, 가을 팜파스그라스축제, 겨울 얼음 축제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영암의 '기찻길'은 40km에 달하는 웰빙 산책로, 무안의 '탄도'는 인구 50여명이 사는 무안 유일의 유인도, 함평의 '함평자연

생태공원'은 나비·곤충 등을 연계해 사계절 탐방 학습이 가능한 자연생태공원이다.

영광의 '법성진성(숲생태공원)'은 조선시대 서해안의 주요 군사거점이었다는 법성포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며, 장성의 죽령산(금체원)은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고, 완도의 '보길도 우암송시열굴원비위'에서는 고산 윤선도와 우암 송시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진도의 '진도미르길'은 바다를 끼고 구불구불 오르락내리락 진도현 북동에서 서망까지 가는 해안길이며, 신안의 '병풍도 맨드라미공원'에서는 형형색색의 맨드라미 꽃구경과 함께 꽃차를 즐기며 조용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애도(속섬)'는 외나로도의 축적항 서남쪽에서 파도를 막아 잔잔한 호수를 연상시키고, 구례의 '천은사 상생의길 및 소나무숲길'에서는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 주변 숲의 상쾌한 기온과 사찰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